

외로운 도시 런던! 시민을 위한 사랑이야기 〈스필리킨(Spillikin-A Love Story)〉 & 〈더티 그레이트 러브 스토리(Dirty Great Love Story)〉

글_김준영(런던 통신원, 런던 ILOVESTAGE Ltd. 프로듀서 junyoung.kim@ilovestage.com)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혼밥' 현상이 초등학교 사이에서도 퍼지고 있다. 서울이나 뉴욕, 런던 같은 대도시 사람들은 왜 외로움을 많이 타게 되는 것일까? 무한 경쟁 사회에 노출되어 어쩔 수 없이 공부나 일만 해야 하는 입장에서 걸으려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지만 실상 돌아보면 혼자다. 이런 현대인들을 위로하듯 갑자기 나타난 두 편의 연극. 하늘에 군용 담요를 드리운 듯 어둡고 길고 차가웠던 영국의 겨울이 지나가고 봄기운이 살짝 느껴지는 이 시기에 난데없이 런던 공연 시장에서 제목이나 콘셉트로는 좀처럼 만날 수 없었던 '러브 스토리' 두 편을 소개할까 한다.

〈스필리킨(Spillikin-A Love Story)〉

이제는 기술이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그 기술이 깎아뺀 그물망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고 문화라는 말은 어디에나 붙일 수 있어 돌아보면 문화 아닌 것이 없는 세상. 그래서인지 기술과 문화의 융합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화두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움직임인 듯하다. 이미 작년에 영국 국적의 구글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에게 4승 1패로 승리하고 이어 중국의 케제 9단을 제치고 세계 바둑랭킹 1위에 오르면서 AI(인공지능)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번엔 런던에서 AI 로봇을 주인공으로 한 공연 〈스필리킨-러브스토리〉가 런던 프리미어로 상연하게 되었다는 소식이다. 형식면에서 상당히 충격적이며 내용 또한 감동적이라 조금 설명을 하자면 아래와 같다.

치매가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 '샐리'라는 이름을 가진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떠나 보냈지만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 하다. 할머니의 남편 '레이몬드'는 인공지능 로봇 공학에 있어 아주 훌륭한 천재적 선구자였는데,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을 무렵 혼자 남을 할머니가 측은했는지 특별한 로봇 한 대를 만든다. 그리고 그 동안 그녀와 어떻게 만나 사랑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는지에 대한 모든 기억들을 이 로봇의 기억 장치에 저장하고 마지막 순간을 친구처럼 돌보며 함께할 수 있도록 선

물로 거실에 남겨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샐리는 여전히 남편 레이몬드의 죽음을 모른 채 학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연락이 없음에 다소 초조해하기도 한다.

처음에 경계를 하던 할머니는 자신과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로봇과 대화를 조심스레 이어간다(죽은 할아버지는 이 로봇에게 치매로 기억이 점점 사라져갈 할머니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고 상기시켜 달라는 미션을 남겼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과거를 놀랍게도 모두 기억하고 있는 로봇을 서서히 친구로 인식하게 되는데, 대화 중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던 로봇이 "할머니 내가 로봇인거 알고 있죠? (원하신다면) 만약 내가 할아버지 레이몬드가 되면 어떨까요?" 하고 묻고 할머니가 동의를 하자 로봇이 스스로 재부팅을 하게 된다. 다시 전원이 켜지면 자신의 얼굴에 돌아가신 레이몬드 할아버지의 영상을 띄우고 로봇은 할아버지의 음성으로 돌아온다. 둘은 서로 추억을 공유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솟아나기 시작한다.

관객들은 샐리 할머니(젊은 시절과 노년)의 두 삶의 시기를 로봇을 통해 듣고 플래시백처럼 무대 한 편에선 실제 젊은 시절의 샐리와 레이몬드 사이에서 벌어지는 연기를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보게 된다. 어떻게 할아버지와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지 과정을 목격하나 현실의 샐리... 치매가 진행되어가면서 사랑하는 상대가 어떻게 잊혀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확고한 과학적 기술과 형체도 없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인생의 황혼기에 조우하는 러브 스토리 과정을 목격하게 되는데, 보면서도 믿기 어려운 큐 4000개가 입력된 로봇의 정교한 연기(대사의 타이밍, 표정변화)도 우수하고 그렇다고 배우들의 연기가 전혀 가려지지도 않으며, 무엇보다 사랑의 힘으로도 함께 이겨낼 수 없는 병적 장애를 목격하면서 오는 생의 좌절감과 그리고 단순한 간병의 대체 차원이 아닌 기술이 인간의 사랑과 이별이라는 감정 사이에서 앞으로 어떻게 자리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올 봄 최고의 작품인 듯하다. 작년 10월부터 영국 전역 투어를 진행 중인 이 작품은 다가오는 3월 7~19일까지 런던 이즐링턴에 위치한 플래장스 극장에서 만날 수 있

다. 한국과 중국 일본까지 진출을 계획하고 있어 곧 한국에서 선보일 것을 기대한다.

〈더티 그레이트 러브 스토리(Dirty Great Love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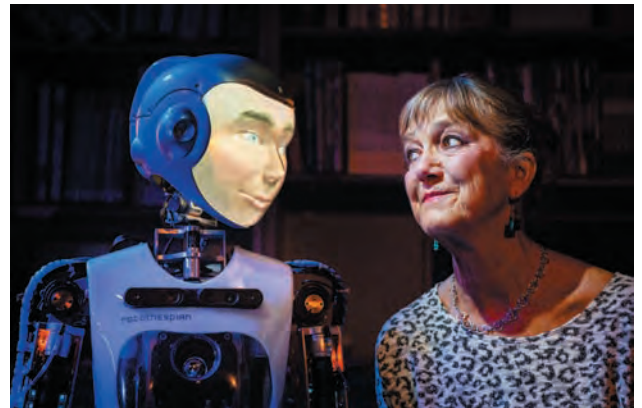
다음은 감동보다는 상큼 발랄한 화제의 웨스트엔드 연극 한 편이다. 지난 2012년 에든버러 축제에서 매진사세를 보인 바 있는 작품인데 오랜만에 웨스트엔드에서 다시 제작이 되었다. 상연이 되자마자 젊은 연인들에게 큰 관심을 모으면서 평단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사회 적응력이 다소 떨어지는 남자 ‘리처드’와 냉소적인 여자 ‘케이티’가 친구의 ‘치너/총각 파티’에 각각 초대되어 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같은 침대를 이용하고 잠자리에 들었던 것을 알게 된다. 여기까지 만으로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대충 짐작이 가능하다. 너무 쉽게 만나 하루밤을 보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엇갈리는 행복만을 반복하다 마침내 서로를 알게 되고 결국 행복한 결말을 맺는다는 클래식한 이야기.

하지만 흔한 내용을 가진 공연에서 런던의 젊은 관객들이 열광하고 신선함을 발견하게 되는 이유는 작품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 인물이 모두 세 명의 각기 다른 친구들을 목소리 톤과 서있는 자세, 억양만을 바꾸어 차이나게 표현한다는 것이고, 또 작품에 쓰인 유머와 날카로운 유희가 넘치는 대사들이 동일한 음으로 끝나는 단어로 만들어져 마치 힙합이나 시를 낭독하는 듯한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등장인물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꼭 이런 친구들은 하나씩 있지 않나 할 정도로 재미있으며 너무나 영국적인 이야기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 공연이라 하겠다.

마침 한국의 ‘H-Star Festival’의 수상자들에게 주어지는 해외 공연 시장 탐방 프로그램으로 런던을 찾은 공연 전공 대학생이 이 작품을 보고 공연 프로듀서와 두 주인공 배우들을 만나 웨스트엔드의 전반적 공연 제작 환경, 뮤지컬 시장 한 가운데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연극의 경쟁력, 이곳에서 배우로서 삶의 의미 등 짚았지만 학생들이 궁금해 했던 이야기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실제 높은 제작비를 감안해(영국 예술위원회의 지원금을 받지 않고 외부 투자로만 진행) 비교적 단순한 의상과 미니멀리즘한 무대디자인이 조금 싱거운 느낌이 있었지만 내용 자체도 어렵지 않고 또 대형 상업 뮤지컬 공연과 비교해도 티켓 가격이 높지 않아 한 번 도전해 볼만한 작품이라 생각해 관람하였고 로맨틱 코미디가 난무하는 한국 대학로 공연 시장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되었다. 영화 〈해리가 쉐리를 만났을 때〉, 〈러브 액츄얼리〉 등의 로맨틱 코미디의 달콤함이 몽글몽글 솟아나는, 봄기운 물씬 풍기는 이 작품은 웨스트엔드 레스터스퀘어 주변의 아트 시어터(Arts Theatre)에서 3월 18일까지 공연된다. 📖



〈스필리킨〉 포스터
©pipeline theatre



〈스필리킨〉 ©pipeline theatre



〈더티 그레이트 러브 스토리〉 ©Chloe Nelkin Consulting